

## 총장-뉴스레터 – 77 (2024-3-29) 출 20 장 7 절-11 절 (제 3, 4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7-8)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악과의 금지라는 순수한 조건을 달고 맺었던 선악과 언약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 속에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죄인들과 체결해 주신 은혜 언약들이다. 그리하여 이 은혜 언약들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두 주체간에 맺어진 것으로 고대 동방에서 중앙 최고 통치자인 황제와 지방 통치자인 제후 사이에 흔히 체결되던 소위 종주권적 언약의 형태와 유사한 면이 많다. 이는 시내산 선민 언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일방적 은혜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 제 3 계명

하나님의 이름(여호와)을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부르고 또한 법정에서 진술을 확정하기 위해서나 일상생활에서 거들먹이는데 혹은 남을 속일 뜻을 가지고 그리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서구 기독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욕설을 하는 것, 곧 하나님 이름을 욕설로 잘못 쓰는 것이 이 계명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거짓과 사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기필코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악이 아닐 수 없다.

### 제 4 계명

안식일은 쉼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하하며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명기 5:15 에서는 같은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댈 때 다른 데 강조점을 둔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곧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고 선언하신다. 사람이 일을 쉼으로써 사람은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일 명령을 주신 제 2 위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마 8:14; 요 5:5-18)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일까지도 용납하신 바 있으셨기 때문이다(마 12: 1-8). 따라서 본문에서 금하는 것은 6 일동안 행했던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적 활동이나 인간의 이기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고나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활동 등이다. 대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코자 하는 선한 노력이나 하나님과 더욱 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경건한 활동,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선한 사업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 **생각하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하여 안식일의 유래를 설명하는 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으로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시키고 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른 것은 성경 각권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일차적으로는 안식일이 천지 창조 사건과 관련되나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 사건과도 관련된다는 내용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보다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의 때에는 출애굽기의 교훈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릴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의 때에는 신명기의 내용처럼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